

떼쓰는 아들 집까지 800m 걷게 한 엄마 기소

떼를 쓰던 8살짜리 아들을 집까지 걸어가게 한 엄마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 8살 아들을 위협에 빠뜨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헤더 월리스 (왼쪽에서 두 번째)와 그의 아이들. 사진=twitter(Heather Wallace)

지난 10월, 텍사스주에 사는 교사 겸 아동 수면 치료사인 헤더 월리스는 가라데 수업을 마친 장남 에이든과 그의 동생들 리암, 데클란을 차에 태워 귀가하던 도중, 떼를 쓰기 시작한 에이든을 차에서 내려 집까지 800m가량 걷게 했다.

월리스는 "에이든이 화가 나면 대화가 안 돼서 우리만의 루틴이 있다."라며 "내가 문을 열자 에이든이 차에서 내렸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말다툼도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와 말다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에이든이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이웃이 월리스를 경찰에 신고했다. 월리스 집으로 찾아온 경찰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월리스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태웠다. 월리스는 아동을 위협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2급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월리스는 변호사로부터 유죄를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시키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 후 수면 컨설팅 회사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교사로 일할 수도 없었다. 월리스 부부는 법률 비용과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집을 팔았다. 사건 이후 이들 부부는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잃었다고 밝혔다.

노출 의상 여성 축구팬 "체포 두렵지 않아"



▲ 한 관중과 사진을 찍고 있는 이바나 놀. 사진=uaenews.ekumkum.com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 여성 모델이 카타르의 엄격한 복장 규율을 무시한 채 노출 의상을 입고 경기장을 찾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8일 이바나 놀(30)은 카타르 도하의 칼리파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F조 크로아티아와 캐나다의 경기에 노출 의상 차림으로 나타났다. 크로아티아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흰색의 체커보드 무늬 드레스로, 치마와 소매 길이가 짧아 다리와 어깨가 훤히 드러난 의상이었다.

이슬람 문화권인 카타르에서는 여성의 복장 규율이 엄격하다. 외국인 복장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으나, 카타르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공장소에서는 무릎과 어깨가 드러나지 않는 복장을 하길 추천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관광객들에게 과도하게 노출한 옷을 피하고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늘은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규정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어깨, 무릎, 배 등 노출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 부위를 다 가릴 옷이 없다."고 말했다.

또 "유럽에서 허잡과 니갑을 존중한다면 무슬림들도 이런 드레스를 입은 나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옷차림 탓에 체포 위험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런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드레스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이어트 위해 섬으로 이주한 남성

섬으로 '다이어트 수련'을 떠난 남성이 7개월 만에 63kg을 감량한 채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 섬으로 이주 전 (왼쪽)과 다이어트 성공 후의 브라이언 오키프. 사진=birminghammail.co.uk

아일랜드 남성인 브라이언 오키프(34) 씨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스페인의 마요르카섬으로 이주했다. 그 당시 그는 153kg의 초고도비만이였다.

브라이언은 섬으로 이주 전 살을 빼기 위해 거의 모든 다이어트법을 시도했다. 심지어 외과 수술로 위장에 풍선을 삽입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시술을 받기도 했지만, 브라이언의 몸무게는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마다 늘기만 했다.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느낀 브라이언은 모든 지인·가족들과의 연락을 끊고 스페인의 마요르카섬으로 잠적했다. 섬에 마련한 공간에 체육 시설을 구비한 브라이언은 '하루에 90분 걷기'에서부터 시작

해 점점 운동량을 늘려나갔다. 다이어트 막바지에는 매일 5시간씩 주 6회 정도, 3회 수영, 3회 달리기라는 강행군을 꾸준히 했다.

브라이언은 SNS를 통해 섬에서의 첫 3개월 동안은 먹고, 자고, 운동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운동으로 축사당한 몸은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7개월 후, 63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한 브라이언은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 깜짝 등장했다. 브라이언이 SNS를 통해 공유한 영상에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브라이언을 얼싸안았다. 브라이언은 현재 건강 인플루언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추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으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HMO Group : SMG, CENTER 환영)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빠진 통증 / 어깨가 안돌아가는 증상 (Frozen Shoulder) / 오십견 / 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교 3~4학년 권장)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 / 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 / Tennis Elbow / 손목 / 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 발목통증 / 변증상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홍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 (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운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Lampson Ave	
Brookhurst St	Yoon Chiropractic	Euclid
	Garden Grove St	
	22 Fwy	